

보도자료

2010년 4월 7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국제협력기획담당관 김재철 과장(☎750-1710)
국제협력기획담당관 윤웅현 사무관(☎750-1715) yunwh@kcc.go.kr**국산 와이브로 및 방송콘텐츠 등 방송통신 유럽진출 지원**
- 이경자 부위원장 러시아와 양자협의 및 MIPTV 참가 -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러시아와 와이브로 등 방송통신 분야의 해외진출 및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고,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방송콘텐츠 전시회인 「MIPTV 2010」에 참가하기 위하여 4월 7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한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통신매스컴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제기구에서의 정책을 공조하는 등 양국간 방송통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짧은 기간내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러시아 스카텔사(요타)를 방문하여 데니스 스베르드로프 CEO와 국내 방송통신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스카텔사의 와이브로 체험장을 방문하여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에서 서비스중인 와이브로 기술과 사업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MIPTV에 참가하여 콘텐츠 360(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멀티미디어 교육용 콘텐츠' 분야를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시상하는 한편, 콘텐츠 360의 VIP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만찬을 주재하여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 및 콘텐츠를 홍보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MIPTV(Marche de Internationale Programm Television)** :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방송콘텐츠 전문 전시회

※ **콘텐츠 360** - 콘텐츠 360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등 신규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국제공모전으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하여 캐나다 National Film Broadband, Ogilvy(광고사)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러시아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상용화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러시아 방문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함께 중소 업체들도 러시아 지역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의 MIPTV 참가는 우리 방송통신 서비스와 콘텐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